

지역 소식 통

정읍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 수상

정읍시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서 모바일 보건소 시스템 활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시 보건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모바일 보건소 시스템 활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최해 AI·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온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평가와 시상을 진행했다.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모바일 보건소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사후 평가 활용을, 서비스기록지 생성을 목표 인원 1인당 시스템 활용 건수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데이터 기반 계량 평가 방식이 적용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사과·배 농가
화상병 예방 총력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화상병 사전 예방과 방제 지침을 강조하며 사과·배 농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탄 듯한 증상을 보이며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발병 시 나무를 제거하고 매몰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정 작업 시 도구를 반드시 소독하고, 유사 제양 발견 시 즉시 제거하며, 타 농장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양 제거 시에는 증상 부위에서 40~70cm 아래를 절단하고, 사과부란병 및 배줄기미름병 도포제를 사용해 남은 부위를 꼼꼼히 처리해야 한다.

시는 내년 3월 상순까지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를 농가에 공급, 농업인들이 3회에 걸쳐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쾌거'

고창군,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실현'을 목표로 반부패 청렴정책 충실히 이행

고창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청렴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방지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민원인과 공직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 △기관 주도의 반부패 추진 실적인 청렴노력도 등을 종합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은 총 400개 공공기관이다. 특히 군은 전북자치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1등급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6개 중 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단 10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과거 2년간 3등급에 머물



렀던 종합청렴도 등급을 1년 만에 무려 2등급이나 끌어올렸다.

군은 민선8기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고창 실현'을 목표로 심덕섭 군수를 중심으로 강력한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며 청렴 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후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전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와 군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 등 분석을 바탕으로 부패 취약 부

위를 발굴,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외부 청렴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을 주제로한 '군민행복 고창 포럼' 개최 △고창군 대표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홍보활동 전개와 찾아가는 부패신고센터 운영 △매 분기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또한 '공공기관 비공무원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창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 △신규 임용 공무원 대상 청렴소통 간담회,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분야별 특검감사 강화 등 제도개선과 직급 간 소통 노력, 불공정 관행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창=김영식 기자

'변화와 성장, 미래 여는 2025년'

고창군, 미래성장 이끌 2026~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대거 발굴

고창군이 19일 오후 심덕섭 군수 주재로 '2025년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위한 국가예산 2차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2차까지 발굴한 2026·27년 국가예산 사업은 총 86건에 5051억 원 규모다. 이 중 2026년 사업은 62건 3555억원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발굴된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꼼꼼히 살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고창 학교 복합문화센터 건립 △외국인 근로자 복합타운 조성사업 △청년농촌보급자 리조성사업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세계유산 자연거스레이션 조성사업 등이다.

고창군은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하여 내년 초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보강,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부처 설득 논리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매년 3~5월까지 부처 예산편성 작업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1월부터 부처를 조기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갈 계획이다.

특히,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추경이 내년 초 예상됨에 따라, 국회단체 미 반영된 주요예산이 정부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윤준병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은 사상초유 감액예산안 국회의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한 3824억원을 확보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원

23일부터 요일 · 출생년도별 5부제 적용... 14세 이하 아동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정읍시가 시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총 10만 2647명(결혼·미혼자 및 영주권자 포함)에게 약 31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낭비적 지출 중단, 집행 부진 사업 축소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통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일(2024년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며, 사망자·전출자·주민등록말소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기준일 기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인 시민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필

수로 지참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동의서와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14세 이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수령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정읍시로 환수된다.

이화수 시장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민생안정 추진계획 수립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6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현 시국에 따른 군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간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 전라회의를 통해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 도모, 취약계층 지원, 재난안전관리 철저, 현안업무 정상 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 등 4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군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 민생안정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군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판로 지원사업, 지역 상권에서 축제·행사 추진,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예산 조기집행 등 고급리·고물가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지원, 재난 및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주 1회→주 2회) 검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연말·탄핵정국 속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추진

고창군이 연말연시와 탄핵정국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8일) 지역내 전통시장(5개소)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설과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전기·소방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특별 안전검검이 이뤄졌다.

이날 점검에선 전통시장 전파 지치대 등의 보강과 화재시 비상대피로 확보를 위한 물건 적재 금지 등의 조치

가 진행됐다.

또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647개소 한파센터의 난방기 운영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캠핑장에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농촌마을 화목보일러 사고 예방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올해 '고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주민(9건)에게 54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인근 시·군에서 고령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D)가 발생함에 따라 서 원천 차단을 위해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3개소)도 상시 운영 중이다.

형광회 고창군안전총괄과장은 "연말과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주의가 흐트러지면서 자칫 큰 재난사고를 부를 수 있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고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5년 수소산업 예산 172억원 확보

부안군이 2025년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172억원을 확보하며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예산은 국비 94억 1,300만원, 도비 14억 2,300만원, 군비 64억 2,900만원, 민자 6억 3,600만원으로 구성됐다.

부안군은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사업(80억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운영(2억원), △고압탄소 탈부착 수소용기 실증사업(44억 7,800만원) 등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2개소 운영비 지원

(8억 700만원)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37억 8,000만원)을 통해 수소차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소저장버스 5대, 고상버스 3대 등 친환경 수소차량 보급을 추진한다.

부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탄소배출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 활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